"오늘 받은 쌀 1만kg 넘어"

메트로 2013년 11월 19일 화요일 www.metroseoul.co.kr

한국인 최초 올해의 선수

매섭게 찾아온 첫눈… 오늘 더 춥다 첫눈이 내린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시민들이 내리는 눈을 맞으며 걷고 있다. 서울의 첫눈은 지난해보다 5일 늦고 평년보다 9일 이른 것이다. 서울 외에도 청주 전주 목포·순천 고창 등지에서도 첫눈이 관측됐다. 전주에는 오전 한때 적설량이 5.2㎝를 기록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부끄러운 시험 맘 상한 '굿닥터'

의사고시 등 관장하는 국시원 '부실한 시험관리' 또 도마에 · "의료인 신뢰까지 추락시켜"

올해 35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신뢰도가 도마에 오르며 의료인에 대한 불신감마저 주고 말았다. 지난 1월 23일 2013년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3037명이 발표됐지만 국시원은 이틀 뒤 프로그램 오류가 있었다며 이중 5명에게 불합격을 통보한 것이다. 결국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 등 국내 보건의료인 시험을 총괄하는 공인 기관의 위신이 추락한 것이다.

이런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국시원의 신뢰성에 또다시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국시원 종합감사 결과, 해당 시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매년 평균 10문제 이상 오류

복지부는 국시원 종합감사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시험 출제 오류 문항은 총 45문항으로 1년에 평균 10개 연류 문항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 인해 불합격 대상인 응시자가 복수 정답 처리돼 합격되는 등 전반적으로 해당 시험의 신뢰도 저하가 불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시원은 문제를 잘못 낸 시험위원은 또다시 시험 출제·개정에 참여토록 위촉하기도 했다.

게다가 시험 문제 유출의 우려도 제기됐다. 올해 의사 실기시험 예정인 자녀분 둔 직원이 출제 및 출제위원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데, 이에 대한 내부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뒤늦게 복지부는 국시원에 "국가시험에 응시할 예정인 자녀가 있는 직원은 문제 출제 관련 부서에 배치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 "개선 의지 있는지도 의문"

국시원은 2011년에도 시험관리 문제가 불거지자 "의사 국가시험 문제 복원과 유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사태 수습과 개선 의지를 보였지만 어떤 점검이나 행동도 없었고 올해 역시 같은 일이 되풀이됐다.

지난 10월 공개된 보건복지부 산하 16개 기관에 대한 종합 평가에서 국시원은 16개 기관 평균인 76.0점에도 못 미치는 72.5점을 받았다. 평가는 업무 효율 및 재무·예산 등 계량평가 부문과 사업 수행, 고객 만족 활동, 성과 관리 등 비계량평가 부문으로 나눠 측정된 것으로 국시원은 주요 사업 수행이나 성과 관리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부실한 역량을 드러낸 것이다.

◆ "족보 의지하는 관행도 문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시원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총괄하는 공인 시험기관이지만 보건의료인을 꿈꾸는 예비 보건의료인들은 늘 족보를 통해 국가시험을 준비한다.

특히 의사 국가시험을 앞두고 족보를 손에 쥐고 합숙에 들어가는 예비 의사들의 얘기는 공공연한 비밀이 된지 오래다.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장모(32)씨는 "국가시험은 통과의례와 같은 절차"라며 "족보를 통해 공부해야 국가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합격자 최모(34)씨는 "족보를 통해 합격은 했지만 이런 시험으로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지 고민됐다"고 토로했다.

국시원이 아닌 선배에서 후배로 전달되는 이른바 족보가 보건의료인이 되는 자격을 부여하는 꼴이다. 또 국가시험을 관리해야 하는 국시원의 책임과 그동안 국시원의 관리로 배출된 보건의료인에 대한 신뢰 역시 문제가 되는 대목이다.

/홍재희기자 hjou 홍@metroseoul.co.kr

252만명 신용등급 상향 17만명은 은행대출 가능

약 252만 명의 신용등급이 개선된다. 특히 7~10등급인 저신용자 가운데 17만 명이 6등급 이상으로 오르며 제1금융권 대출이 가능해진다.

개인 신용평가업체인 KCB(코리아크레딧뷰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개인 신용평가 체계인 케이스코어(K-Score)'가 연말부터 시중은행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실수로 연체한 경우에 대해 새 체계는 연체 상환 후 신용을 종전보다 빠르게 회복시킨다. 약 95만 명이 이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서비스를 잠깐 이용하거나, 자동차 구입을 위해 캐피탈 업계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아도 등급에는 영향이 없게 된다.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비자는 부채 상환 도중이라도 신용 평점이 좋아질 수 있다.

소비자가 KCB의 웹사이트(www.sizsin.co.kr)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국세 납부정보 등을 직접 등록하면 신용에 긍정적인 요소가 된다.

이번 체계는 올해 말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모든 은행업계가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현정기자 hkim1@

돈 내고 빅 데이터 주는 수능생

기자 수첩
장 윤 희
<경제산업부 기자>

첫눈이 내렸지만 대입 수험생들은 마음이 편치 않다.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입 준비는 사설 학원의 예측 서비스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사교육 사이트 메가스터디 진학사 등은 '합격 예측' '정시·수시 예상 지원' 서비스 명목으로 이용자로부터 몇만원씩 받는다. 우리나라 한 해 수능 응시생 65만 명 가운데 일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해도 업체가 챙기는 이득은 수십억원을 호가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입시 사이트는 수험생이 입력하는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합격 예측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험생이 모의 입시 결과를 얻으려면 자신의 수능 가채점 점수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10여 년 동안 꾸준히 제공된 수험생들의 가채점 결과는 빅데이터가 되어 사교육 기관을 살찌우는 밑바탕이 되고 있다.

사교육이 번창하는 근본 원인은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정부 3.0'을 내세우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 서비스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요즘 각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정부 3.0 교육을 받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낸다. 정부는 빅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수험생들에게는 인색하다. 수능 제도를 난수표처럼 만들어놓고서는 기본적인 가채점 통계 정보 하나 알려주지 않는다.

수많은 수험생들이 오늘도 부모님 카드로 자신의 입시 결과를 점치본다. 우리나라는 사교육 시장에서만큼은 이미 빅데이터 강대국이다.

한·중 첫 고위급 전략대화…북핵 등 논의

한국과 중국 외교·안보 실무를 총괄하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첫 한·중 고위급 외교·안보 전략대화를 열었다.

양측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6자회담과 함께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 문제, 미국 미사일 방어 문제 등 한반도 주변 현안을 폭넓게 다뤘다.

이번 대화는 지난 6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대화를 포괄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열린 것으로,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최고위급 채널이 안정적으로 가동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회담 전 박근혜 대통령은 양제츠 국무위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 정세와 양국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중기자

김장수 실장(왼쪽)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18일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 & 뉴스

체감온도 영하 40도에도 버티는 군복 개발 착수

● 국방부가 체감온도 영하 40℃에서도 보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한복 개발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18일 "한반도 작전환경을 고려해 혹한 또는 강설 등의 조건에서도 일정수준의 보온성과 방투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신형 방한복을 2016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온성을 향상시키면서도 무게는 기존 방한복 대비 5% 줄이는 것이 군 당국의 목표다.

개발비로 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981년 제작된 이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만 성능을 개량한 비옷 소재도 새로 개발하기로 했다. /김신호기자

한국행 탈북자 13명 中공안에 체포…2명 도주

● 한국행을 위해 중국에서 동남아의 한 국가로 이동하던 탈북자 13명이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탈북자 15명은 지난 15일 오전 쿤밍에서 동남아로 이동하던 중 중국 공안에 적발됐고, 체포되는 과정에서 2명은 도망쳤다.

일어선 與·앉은 野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립해 박수를 치며 인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냉랭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있다. /뉴시스

"1년 다 돼가는데 안타깝다… 야당이 제기한 문제 여야 합의하면 수용"

국회에 공 넘긴 대통령

예산안 관련 첫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야당이 제기한 문제들을 포함해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으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여야 어느 한쪽의 의견이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움직일 수는 없다"며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특검 요구도 여야 합의가 전제된다면 조건 없이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대선을 치른 지 1년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과거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의 대부분을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 기조를 설명하는 데 할애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돼야만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예산안 빨리 통과시켜 달라"

특히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야권을 압박했다.

국민복지와 관련해서는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2000억원을 반영했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공약 준수의 의지를 강조했다.

/김선중기자

민주 "말씀은 많았지만…" 오늘 황교안 등 해임안 제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가 확실한 온도 차를 보였다.

특히 민주당은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가기로 하고 19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18일 오전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보다 중요한 책무는 없는 만큼 오늘부터 여야가 민심을 함께 손잡고 나가도록 힘써야 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 지긋한 혼란을 끝낼 수가 없다. 말씀은 많았지만 정답은 없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역시 "대통령만이 (국정원 등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서 기대에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국회 본관 계단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박 대통령에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도입 등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도운기자

박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민주당 의원-경찰 몸싸움

박근혜 대통령의 18일 시정연설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경호지원을 하는 경찰 경호대 요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몸싸움은 규탄대회를 열기 위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국회 본관 앞에 세워진 청와대 차량을 옮겨줄 것을 청와대 직원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이때 강 의원은 경호대 요원들에게 목과 허리춤을 잡혔고, 운전 담당 현모 순경은 강 의원의 머리에 얼굴을 맞아 입술이 터지기도 했다. /김선중기자

헬기 보유업체 특별점검 국토부 특별점검반이 18일 김포공항 내에 소재한 민간 헬기 보유 업체 중 방문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자녀 외국인학교 입학시키려 허위국적 취득 32명 결국 솜방망이 처벌

학부모 전원 집행유예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외국 국적을 허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들이 모두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해준 국적취득 알선 브로커 조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는 18일 외국인학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서모(42·여)씨 등 학부모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160시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들 학부모는 2009~2012년 브로커 조씨 등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도미니카·온두라스·과테말라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 국적을 허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위조 입학 서류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47명을 기소하고 이 중 32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학부모들은 재벌가와 상장사 대표 및 임원, 증권가 임체 대표, 의사 등 부유층이 대부분이었다. /윤다혜기자 yth@metroseoul.co.kr

서울 '진짜 겨울'은 30일 시작

온난화로 30년새 11일 늦어져
여름 시작은 9일가량 빨라져

올해는 몇도까지?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되고 있다. /뉴시스

최근 30년 사이 지구온난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서울의 겨울 시작일이 11일 늦어진 반면 여름 시작일은 9일 빨라졌다.

기상청은 18일 "1971~2010년 서울의 계절 시작일을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서울의 겨울 시작일은 1970년대에 비해 11일 늦어진 11월 30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30년 새 겨울 지속기간은 17일 짧아진 102일로, 2000년대 들어서 서울의 겨울은 3개월 가량으로 줄게됐다.

1970년대에는 서울의 겨울이 11월 19일 시작됐고 80년대와 90년대에는 11월 23일로 점점 늦어져 2000년대 들어서는 11월 30일에 겨울이 시작됐다.

겨울 지속 기간은 일 평균기온이 5도 미만으로 떨어진 뒤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과 5도 이상으로 올라간 뒤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을 계산한 것으로 1970년대 119일, 1980년대 111일, 1990년대 104일로 계속 줄었고 2000년대에는 102일로 줄게됐다. 30년 새 여름 시작일은 6월5일에서 5월 27일로 빨라지고 지속 기간은 105일에서 121일로 16일 길어졌다. /김현정기자 [illegible]

한강공원 음식배달 전단 과태료

오토바이 운행도 집중단속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배달음식 전단을 살포하다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8일 그동안 배달음식 전단을 묵인했지만 앞으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엄격히 적용해 전단에 적힌 업체에 전단 1장당 약 1만8000원~3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당 구청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전단을 줄이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고, 이로 인한 악취 발생 등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또 이륜자 진입을 금지한 한강공원 관련 조례에 따라 오토바이 운행 적발 시 5만원, 영업행위 적발 시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다혜기자 yth@

사행성 게임 앱 '어플방' 판매업자 첫 구속

모바일 사행성 게임 어플리케이션(앱) 판매업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속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8일 모바일 게임 앱을 내려받아 태블릿 PC를 이용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도록 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등)로 박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사행성 게임을 본뜬 앱을 개발하고서 이른 앱 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씨가 개발한 앱은 신종 사행성 게임장인 이른바 '어플방'을 통해 급속히 확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씨 앱을 이용해 직접 어플방을 운영한 업주 김모(52)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과 게임기 설치기사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은 순기자

고교생들 독도 플래시몹 18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서원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학생 800여 명이 대형 태극기를 걸어놓고 '독도는 우리땅'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플래시몹을 선보이고 있다. 서원고 학생자치회는 이날 플래시몹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독도에 대한 한국 영토임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월드프렌즈 자문단' 발대식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 월드프렌즈 교육원에서 제9기 월드프렌즈 중장기 자문단 발대식을 열었다.

이번에 선발된 21명의 자문단원은 베트남, 에티오피아, 에콰도르 등 15개국에서 6개월 또는 1년간 봉사활동을 한다.

방송대 '제2인생 설계 강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가 28일 은퇴 후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제2인생설계과정 11월 온라인 강좌'를 연다.

4050세대가 실질적인 노후를 대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한 과정으로, 25일까지 홈페이지(prime.knou.ac.kr)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 정책담론집 출간

노현송(사진) 서울 강서구청장이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그간의 소회를 담은 정책담론집 '가슴을 열면 마음이 보인다'를 출간했다.

그는 ▲민선2기 구청장 편 ▲17대 국회의원 편 ▲민선5기 구청장 편 등 4부로 이 책을 구성해 강서구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어떻게 처신하고 일을 추진했는지를 밝히고 있다.

민선2기 구청장 편에는 40대 젊은 구청장으로 취임해 주민과 소통하고, 화곡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가로공원길 고압송전탑 철거를 성사시키면서 느낀 정과 감회를 잔잔히 들려주고 있다.

17대 국회의원 편에서는 정의로운 시대를 위해 신군부 세력의 잘못된 상훈을 바로잡기 위한 상훈법 개정에 주력했다고 밝히면서, 그 당시 세간의 이목을 받았던 사건의 중심에 서서 추진했던 소회를 들려주고 있다.

노 구청장은 20일 오후 6시30분에 강서구민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윤다혜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슈베르트 요절하다

1828년 11월 19일 낭만주의 음악을 선도했던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프란츠 피터 슈베르트가 불과 31세의 젊은 나이에 장티푸스로 죽었다. 신처럼 숭배하던 정신적 스승 베토벤이 죽은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때였다. 키가 작고 지독한 근시였으며 소심하기 그지없었던 슈베르트였지만 가난과 타고난 병약함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600여 편의 가곡, 1편의 교향곡, 소나타, 오페라 등을 작곡했다. 특히 주옥같은 독일 가곡을 많이 작곡해 '가곡의 왕'이라 불린다. 그의 유해는 유언에 따라 생전 한번 뵙고 싶던 베토벤의 무덤 가까이 묻혔으며 11년 뒤 모든 빈의 중앙묘지로 옮겨졌다.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Russia

Классика со

metro Sweden

venskar will lära sig arabiska

스웨덴에 아랍어 배우기 열풍 이유는?

스웨덴에 때아닌 아랍어 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월뫼 지역을 중심으로 아랍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는 아랍 문화권 나라에서 스웨덴, 특히 월뫼 지역으로 오는 이민자의 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 아랍어 수업을 찾는 학생이 많아지면서 한 대학에서는 저녁으로 강좌를 추가 개설했다. 이 학교에서는 예년에 비해 두 배가 넘는 학생들이 현재 아랍어를 배우고 있다고 밝혔다.

metro HongKong

차 경매에 6900만원짜리 푸얼차 등장

최근 홍콩에서 열리고 있는 차(茶) 경매에 고가의 차들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홍콩화후이 경매회사가 오는 23일 개최하는 차 경매에 등장하는 1950년대 산 푸얼차(보이차)인 '보이홍인금원차'는 335㎏에 약 50만 홍콩달러(약 6900만원)를 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임의 뤼후이경매회사 고문은 "최근 농약을 치지 않은 농산품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래된 찻잎의 가치가 10배 이상 뛰었다"고 말했다.

metro France

pour pédaler

자전거 바퀴에 홍보문구 달면 광고비 드려요

프랑스 낭트에서 자전거 바퀴를 통해 광고를 하는 사업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에코벨로'라는 이름의 자전거 바퀴엔 흰색과 초록색으로 깔끔하게 디자인된 로고가 눈에 띈다. 조금은 특별한 자전거를 만든 세바스티앙 부르부숑은 "이 자전거로 길거리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꼭 쳐다본다"며 자전거의 인기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회사 에코벨로를 통해 특별한 홍보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다. 그는 홍보 콘셉트에 대해 "단순하다. 우리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전거에 홍보문구를 부착한 뒤 홍보비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홍보 내용은 지역의 기업부터 동네 상점까지 다양하다. 광고 문구가 눈에 잘 띄도록 자전거 바퀴엔 위치추적장치(GPS)가 달려있어 이동 경로 파악도 가능하다.

그는 또 "이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도심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 홍보비를 받게 된다. 페달을 밟을 때만 로고에 불이 들어와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시간만큼 홍보비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르부숑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홍보를 해보고 싶었다"면서 "우리 자전거는 장애인과 노숙자들이 프랑스 지역의 부품을 모아 만든 메이드 인 프랑스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자전거로 홍보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처지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송미 로랑 기자·정리=권주리 인턴기자

뭉크의 '절규' 이유가 기막혀!

명화 속에 '액정 깨진 스마트폰' 등 포토샵 이용해 그려넣는 한국인 일러스트레이터 화제

네덜란드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작품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가 '아이폰을 든 진주 귀걸이 소녀'로 재탄생했다(왼쪽). 에드바르 뭉크의 대표작 '절규'의 주인공은 깨진 스마트폰 액정 때문에 절규하는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졌다.

프랑스의 신인상주의 화가 조르주 피에르 쇠라의 대표작 '그랑드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 속 주인공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일러스트레이터 김동규(31)씨는 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멋진 풍경을 찍고 있다고 대답한다.

최근 유명 화가의 그림을 재해석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새로운 예술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김씨의 작품들이 러시아에서 화제다. 그는 특히 스마트폰과 랩톱(노트북)을 명화 속에 그려 넣어 눈길을 끌고 있다.

왜 고전 명화에 스마트폰을 접목시켜 그림을 그리게 됐느냐는 질문에 김씨는 "화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많은 명화들을 보며 현대인들의 스마트폰 사랑을 이 그림들에 접목시키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마음에 드는 명화를 선택한 뒤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마트폰 그림을 넣는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명화를 그리는 것이 기계에 의존하는 현대인을 풍자하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김동규는 "누군가를 조롱하기 위해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다른 사람들이 즐겁고 유쾌한 시각으로 그림을 봐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스마트폰이 일상 생활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현대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은 아주 자연스럽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며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상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훌륭한 그림의 소재"라고 강조했다.

애플사의 제품을 그림 소재로 자주 이용하는 이유를 묻자 "애플사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PC를 그림 속에 자주 등장시키긴 하지만 다른 제품도 많이 사용한다"며 "특정 회사의 제품만 그림 소재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올레이 이조시모프 기자·정리=조선미 기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노후엔 병원 갈 일도 많은데 사망보장뿐이라고?

노후보험은 사망보장은 물론
노후에 보장받는 내용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명품부모님보험

똑똑한 실버시대를 위한 똑똑한 보장!
치매도, 입원비도, 사망보장도! 노년 3대 보장을 하나로!

치매간병비II (중증치매) 3천만원 (최초 1회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상해 · 질병 입원일당
상해 입원일당(180일 한도 / 일당 2만원)
질병 입원일당(180일 한도 / 일당 2만원)

상해 · 질병 사망보험금 1천만원
상해사고로 사망시 지급
질병사망 또는 약관에 정한 지급률 80% 이상 후유장해시 지급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 1천만원 한도 Active보험금

1577-6427

암만 무서운줄 알았는데 중년 3대 큰병?

중년이 되면 암도 조심해야하지만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의 큰 병도 대비를 해야합니다

무배당 Super 큰병이기는보험 1304

암보험 하나로 불안한 중년을 위한 똑똑한 보장!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3대 큰병을 하나로!

암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가입후 91일부터 보장, 최초 계약후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 금액의 50%만 지급(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 지급)

뇌졸중 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최초 계약후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 금액의 50%만 지급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최초 계약후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 금액의 50%만 지급

골절 · 화상 진단 의료비용 · 골절수술 의료비용 1천5백만원 한도
상해로 약관에 정한 골절 · 화상 진단 또는 골절수술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1577-6428

Daum AIG

www.aig.co.kr

AIG 더 좋은 내일

말랑한 세단 vs 단단한 쿠페

엄의택 기자의 車車車

■벤츠 뉴 E클래스 두 모델

뉴 E클래스 쿠페와 카브리올레는 세단의 파생 차종이지만 휠베이스(앞뒤 차축 간 거리)가 세단보다 115mm 짧고 트레드도 좁다. E클래스 세단이 말랑말랑한 승차감을 보여주는 반면에 쿠페는 상대적으로 단단한 느낌이다. 고속 핸들링 역시 안정감이 매우 높다. 반면 통통 튀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단단한 승차감을 싫어하는 이에게는 언 어울릴 수 있다. 이와 달리 카브리올레는 지붕을 열고 달릴 수 있는 차의 특성에 맞게 안락함과 여유로움을 중시했다.

범퍼 공기흡입구를 키우고 앞뒤 펜더의 볼륨감이 풍부한 쿠페와 카브리올레 디자인은 세단보다 더 매력적이다.

세단과 다른 핸들링 추구를 위해 휠베이스를 줄인 만큼 실내 공간에서는 손해를 봤다. 그러나 쿠페나 카브리올레는 주로 많아두 명이 타는 차이기 때문에 연게 측장을 부분은 아니다.

시승차는 두 모델 모두 E350이 배정됐다. V6 3.5ℓ 306마력 가솔린 엔진이 7단 자동변속기와 조합된 파워트레인이다. 엔진의 정숙성과 파워는 동급 최고 수준이다. 강렬한 맛은 없지만 힘이 충분하고 무엇보다 변속기와의 매칭이 훌륭하다. 덕분에 넓은 구간에서 여유 있는 토크 감각을 보여준다.

3.5 쿠페의 복합연비는 9.8km/ℓ로, 같은 배기량의 세단(10.3km/ℓ)보다 떨어진다. 252마력의 세단이 연비를 중시한 반면, 쿠페는 출력을 높이면서 주행의 즐거움에 자중했기 때문이다. 카브리올레는 이보다 더 떨어지는 9.3km/ℓ의 복합연비를 나타낸다. 차체 강성 보강을 위해 쿠페보다 120kg이 무겁게 설계된 탓이다.

뉴 E클래스 쿠페와 카브리올레는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차다. E350 카브리올레는 8490만원, E350 쿠페는 7930만원으로 가격은 세단보다 약간 비싸다. /[illegible]

항공사 좌석 실시간 확인 가능

아시아나 차세대 여객시스템 도입 수속·대기시간 줄어들 듯

아시아나항공이 고객들의 항공예약과 발권을 효과적으로 돕는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한다.

아시아나항공은 18일 윤영두 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아시아나항공 차세대 여객시스템 도입식'을 열며 고객의 항공권 예약 및 발권 서비스 편의도를 높인 여객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여객시스템이 도입되면 항공사 간 좌석 상태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신속한 항공권 예매를 할 수 있다. 각종 프로세스 개선으로 항공권 환불 및 재발행 등이 더 빨라지고, 고객의 여정 및 선택 정보 처리가 체계화돼 고객 맞춤 서비스가 강화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5월부터 LA공항을 시작으로 아시아나 전 취항지 공항에 차세대 여객시스템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확대되면 단체 탑승객의 공항 수속 시간이 2~3배 단축되고 탑승객들의 공항 대기 시간도 줄어들 전망이다. /조문희기자 unique@

'삼성 월렛' 오프라인 신용카드 기능 추가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인 삼성 월렛에서 오프라인 신용카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18일 6개 카드사로 구성된 앱카드협의체와 삼성 월렛에 앱카드 서비스를 적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앱카드는 모바일용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기존 플라스틱 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바코드·QR코드 등을 통해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이다. 롯데·삼성·신한·현대·KB국민·NH농협 등 6개사의 서비스가 지원된다. /김비교기자

휴대전화산업

"보조금 공개로 붕괴라니"

정부 "논리적 비약 불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과 관련, 범정부 차원에서 제조사 압박에 나섰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1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 단통법에 대해 휴대전화 제조사 측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들이 쏟아져 여론이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날 "제조사가 앞에선 미래부와 단통법을 놓고 논의하려는 자세를 취하다가도 뒤로는 여론을 호도하는 양동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단통법 통과로 인한 제조사 피해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단통법 통과 시 제조사의 원가 자료 등 제출받아 영업비밀까지 공개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자료 제출 대상은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등 최소한의 자료라며 그동안 정보통신부, 방통위를 거치며 제출받은 기업 정보를 외부로 누설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휴대전화 산업 붕괴 우려 주장에 대해서도 홍 과장은 "어떻게 제조사 장려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제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과도한 논리적 비약"이라며 "보조금 역시 금지하려 하는 것이 아닌 투명하고 부당한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 역시 "이번 법안은 판매장려금을 투명화하자는 데 있다"면서 "판매장려금이 투명화되면 이용자는 적정 단말기 가격을 이해할 수 있고, 시장 경쟁을 통해 출고가도 낮아져 국민들도 적정 가격에 휴대전화 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과장은 이어 "현 27만원의 보조금 가이드라인 역시 향후 공시 제도 등이 도입되면 이에 맞춰 상한액을 맞춰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부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침묵을 지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부의 주장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말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단통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전망하고 있다. 과연 제조사와의 첨예한 갈등 속에 단통법이 원활히 연내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제주풍경·조랑말 담은 그림 접시 한국도자기는 2014년 갑오 해를 기념해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에서 사석원(오른쪽) 작가의 작품 '억새꽃과 제주도 조랑말'을 담은 그림접시 출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사석원 작가가 제주 풍경과 조랑말을 표현한 접시를 한국도자기 직원들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봉 5억 이상 등기이사 536명

500대 기업 보수현황

국내 500대 기업 중 등기이사의 평균 연봉이 5억원을 넘는 곳은 176개사에 이르고, 내년 기업 연봉 공개 대상은 53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업체인 CEO스코어는 18일 비상장사를 포함해 국내 500대 기업의 등기이사 보수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에단 말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돼 기업은 5억원 이상 등기이사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

이 중 삼성, 신세계 오너 일가는 대부분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연봉 공개 대상이 아니다. 삼성에서 연봉 공개 대상인 오너 일가는 이건희 회장의 장녀로 호텔신라 등기이사를 맡고 있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뿐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 및 김재열 삼성엔지니어링 경영기획총괄 사장 등은 미등기 임원이다.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의 경우 전부 미등기 임원에서 빠졌다.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 2월 계열사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고, 이명희 회장과 정재은 그룹 명예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도 미등기 임원이다.

반면 현대차그룹과 SK 등 대다수 그룹은 대주주가 등기이사를 맡고 있어 연봉을 공개해야 한다.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현대모비스·현대제철·현대건설,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 정태영 사장은 현대카드·현대캐피탈, 정일선 사장은 현대비앤지스틸, 신성재 사장은 현대하이스코의 등기이사를 맡고 있다.

SK는 최태원 회장이 SK하이닉스·SK이노베이션·SK C&C, 최재원 부회장이 SK네트웍스·SK E&C, 최창원 부회장은 SK가스·SK케미칼, 최신원 회장이 SKC의 등기이사를 맡고 있다. LG는 구본무 회장이 LG, 구본준 부회장 LG전자 등기이사로 등재됐다. /김태균기자 kas@

남자의 전설이 부활한다!
MUSICAL
삼총사
THE THREE MUSKETEERS
2013.11.26 마지막 티켓오픈!
2013.12.13~2014.2.2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www.musicalthreemusketeers.com

취업하려면 스펙보단 스토리

채용시장 5대 트렌드

취업하려면 스펙보다 스토리를 쌓고 SNS를 취업 무기로 삼아라.

18일 취업포털 사람인은 최근 5년간 채용 트렌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과거처럼 정규직·대기업만 노렸다가는 취업에 실패하기 십상이라는 설명이다.

1 열린 채용 … 탈(脫)스펙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채용에서 서류전형이 사라진다. 자기소개서만으로 지원자를 평가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사람인이 기업을 대상으로 '스펙의 평가 비중 변화'를 물었을 때 "낮아진다"(38%)가 "높아진다"(15%)보다 2배 이상 많았다.

2 인턴은 필수

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2009년 대기업 30.4%, 중소기업 12.9%에 불과했던 인턴 비중이 2012년에는 대기업 46.1%, 중소기업 52.9%로 크게 늘었다. 삼성그룹의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 10명 중 3명은 삼성 인턴 출신으로 나타났다.

3 SNS 취업 신무기

올 하반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대졸 신입 공채 때 서류 평가전형 없이 SNS로 진행했다. 한국남동발전, SK텔레콤 등은 SNS로 스펙 초월 소셜리크루팅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4 중견·중소기업도 OK

최근 사람인이 신입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목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중견기업(46.2%)이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28.4%), 대기업(25.4%) 순이었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중견·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는 구직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5 이색 잡페어 등 대거 등장

현대자동차는 올해 잡페어를 통해 '5분 자기 PR' 프로그램을 진행, 우수자에게는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을 줬다. 기아차는 'K-토크'를 도입해 공개 모의 면접, 릴레이 강연, 드라이빙 상담 등을 진행했다. LG전자는 사전 신청을 통해 취업 준비생을 선발, 1박2일간 잡캠프를 열었다.

/미국경기자 [illegible]

'포코팡' 다운로드 600만건 넘었다

인기 모바일 퍼즐게임 '포코팡'이 누적 내려받기 600만 건을 돌파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자사가 서비스하는 모바일게임 포코팡이 지스타 기간 동안에만 100만 건 이상의 내려받기를 보이며 총누적 600만 건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기준 500만 내려받기를 발표한 직후 3일 만의 기록이라 더욱 화제를 모았다.

앞서 NHN엔터테인먼트는 부산에서 열린 지스타2013 때 포코팡 야외 부스 운영, 지하철 게릴라 이벤트 등으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벌였다. 특히 포코팡은 부산에 위치한 중소기업 트리노드가 개발해 더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NHN엔터테인먼트 정우진 사업센터장은 "이번 지스타를 통해 포코팡 인기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다양한 신규 콘텐츠와 이벤트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illegible]기자 unique[illegible]

소셜커머스 "★ 잡아라"

업계 왕좌 자지 위해 불꽃 마케팅 … 출혈 경쟁 우려

소셜커머스에 '수지·전지현(사진)·송중기·이승기'와 같은 톱스타가 올리고 있다.

모바일 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이에 최적화된 소셜커머스가 부각되고 있고 특히 주요 업체들이 저마다 1등을 확신할 정도로 리더와 추격자의 간격이 좁은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티몬은 '국민 첫사랑'으로 통하는 수지를 홍보 모델로 선정했다. 계약 기간은 6개월로 길지 않지만 보별료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위메이크프라이스(위메프)는 이승기와 어서진을 왈리며로 발탁했다.

두 스타가 활약 중인 TV CF는 특유의 재미로 시청자와 소비자를 즐겁게 하고 있으며 위메프는 10월 소셜커머스 웹 방문자 수 1위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위메프는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송인 클라라를 내세운 '클라라 레깅스(스케처스)'를 단독 판매하는 등 연예인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실 티몬과 위메프가 이처럼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은 전통의 강호 구팡으로부터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쿠팡은 지난 5월 또 다른 톱스타 전지현과 송중기를 내세워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쿠팡은 이전에도 김태희와 비를 내세워 인지도를 대폭 끌어올렸다.

광고계에서 말하는 특A급 연예인들이 소셜커머스에 올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소셜커머스 상위권 업체들이 이들 스타를 쓸 정도로 자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티몬과 구팡의 경우 연간 거래액은 1조원에 육박하지만 진정한 매출이라 할 수 있는 총 수수료는 1000억원대다. 하지만 광고·마케팅비 등에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 영업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독하면 '자본 잠식' 경고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레드오션에서 확실한 승자가 되기 위해 저마다 출혈을 감수하는 실정이다.

소셜커머스 관계자는 "확실한 우위에 선 업체가 없다는 게 문제다. 서로 왕좌를 자지하기 위해 제 살 깎아 먹는 경쟁을 한동안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봉준기자 zee@metroseoul.co.kr

수출상담 열기 후끈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중소기업청과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코리아 그랜드 소싱페어'에서 중국·아세안·중앙아시아 등 신흥시장의 바이어들이 중소기업과 자동차 부품·동정·선선식품·화장품·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의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KT CEO추천위원회 8명 구성

위원장에 이현락 이사

KT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CEO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CEO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7인 전원과 사내이사 1인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현락 이사가 맡았고, 사내이사 1인에는 김일영 사장이 참여한다.

KT 이사회는 사내이사 선임과 관련 "현재 2명의 사내이사 중 표현명 이사는 대표이사 대행으로 경영 계획, 현장 방문 등 업무에 전념하고, 최고경영자(CEO) 추천 관련 활동은 김일영 이사가 분담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EO추천위는 25일께 첫 회의를 열고 CEO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공모를 거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후임 CEO는 CEO추천위가 재적 위원 과반수(위원장 제외) 찬성으로 후보를 결정한 뒤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 여부를 결정한다. /이재영기자 [illegible]

SK C&C 유연근무제 도입

SK C&C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SK C&C가 도입한 유연근무제는 ▲출퇴근 시간을 30분 단위로 조정하는 '선택근무제'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 근로일수나 시간을 늘리는 대신 업무량이 적은 시기에 근로일수와 시간을 줄이는 '탄력근무제' ▲연구개발이나 시스템 설계·분석 등 정해진 업무 수행을 구성원 재량에 일임하고 투입 시간에 관계없이 업무 시간을 인정해주는 '재량근무제' 등이 있다. /이재영기자

손가락 하나로 다되는 우리집

건설사 최첨단 시스템 적용한 아파트 속속 선봬

아침 6시, 벽에서 울리는 알람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A씨. 누운 채 손을 흔들어 알람을 끈 뒤 욕실로 들어가 그날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오늘 하루 필요한 열량과 그에 따른 식사량, 운동량 등을 확인한다. 아무 사람이 앞에 서면 투명에서 바뀌는 안방 거울에서 날씨에 맞춰 제안해준 대로 옷을 입고 출근 준비를 한다.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거나 적어도 수년 내 현실이 될 이야기다.

아파트가 IT 기술을 만나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과거 방문객 얼굴을 확인하거나 관리실과 통화하는 기능이 고작이었던 월패드는 이제 모닝콜은 물론, 각종 일정 관리와 주차 위치 확인, 전기·가스 사용량 조회까지 담당한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유롭게 전등, 냉난방 온도 등도 제어할 수 있게 됐다. 손가락 하나로 아파트를 조절하는 세상이 열린 셈이다.

이 같은 똑똑한 아파트는 입주민의 생활의 편리를 극대화하고, 관리비도 절약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건설사들도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는 버튼과 모바일로 세대 내 전등과 가스, 난방의 일괄 소등이 가능하고 동체 감지는 물론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가능한 USS 시스템을 도입했다. 추운 겨울 외출했다 귀가하기 전 난방을 미리 켜 둬 따뜻해진 집에서 편하게 쉴 수도 있다.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 롯데캐슬 더클래식'은 10인치의 월패드로 이뤄진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 조회와 조명·가스 밸브·난방 제어를 할 수 있다. 외부에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컨트롤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래미안 강동 팰리스' 에서는 욕실 블루투스 연동으로 방문자 통화나 문 열림, 전화 수신, 비상 호출 등을 할 수 있다. 또 자동차 블랙박스와 같이 세대 내 침입자 발생 등 비상시 자동으로 거실 조명 점등 및 영상 자동 녹화가 이뤄지는 홈네트워크 시스템(HAS)이 적용된다.

세종시 3-3생활권 M3블록 'M3블록 모아미래도 리버시티'는 거실 등, 난방, 가스의 인터넷 ARS 제어가 적용된다. 더불어 엘리베이터 콜 기능, 전화 수신, 방문자 확인, 문 열림 기능을 갖춘 월패드 및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된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래미안 강동 팰리스'에 적용된 욕실 블루투스 스피커폰을 모델이 사용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망포동 '영통 SK뷰'는 단지 내 지능형영상감지솔루션(VMS)이 적용된 최첨단 스마트 보안 시스템을 채택했다. 이는 지하주차장의 주요 동선, 놀이터, 엘리베이터 등에 설치되어 배회자, 방치물, 넘어짐 등을 자동으로 분석해 피사체의 특이 행동을 화면과 경보음으로 즉각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박선옥기자 pso1129@metroseoul.co.kr

"주택기금 리츠에 출자"

서승환(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금융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주택기금과 같은 공적자금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사업에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주택기금을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국제주택금융포럼'에서 "주택기금과 선진 주택금융 기법을 활용해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스템을 복원하고, 리츠 등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눈부신 경제성장 덕분에 재정 부담 없이 개발 이익만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됐다"며 "그러나 지금은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 시장 장기 침체로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메커니즘은 작동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장관은 "재정과 주택기금이 역할을 분담해 쇠퇴하는 도시를 되살려야 하고, 이를 위해 주택금융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공적 보증·보험 등의 자금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사업에 흘러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의 성공적 준공과 아라온호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장보고 과학기지 2단계 건설단 '출발' 현대건설 직원을 포함한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2단계 공사를 맡을 150여 명의 건설단 본진이 지난 16일 아라온호 승선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앞서 지난 1988년 남극에서 세종과학기지를 건설한 바 있다. /현대건설 제공

충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뜬다

대전 대덕연구단지와 세종시를 포함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수도권 정부 라인에 버금가는 신주거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

KB부동산에 따르면 10월 전월 대비 매매가 상승률은 충북 0.22%, 충남 0.63%, 대전 0.12%를 기록했다. 전세 가격도 충북 0.44%, 충남 1.20%, 대전 0.56% 상승한 가운데 세종시는 1.10%나 급등했다.

이 같은 충청권의 호재를 이어가고자 건설사들도 잇달아 분양에 나서고 있다. 모아종합건설과 중흥건설은 오는 22일 세종시 3생활권에 'M3블록모아미래도 리버시티'와 '중흥S-클래스리버뷰'를 공급한다. 인근으로 세종시청,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공동청사, 조세연구원, 법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이 내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라 탄탄한 배후 수요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효성은 대전시 관저지구에 '관저지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의 견본주택을 지난 15일 오픈했다. 전용면적 74~84㎡ 전체 460가구 규모다. 지구 내 10년 만에 선보이는 신규 물량단계 신주거 트렌드가 반영된 설계로 눈길을 끈다.

양우건설은 대전 도안신도시에서 '양우내안애'를 분양한다. 총 500가구, 전용면적 70~84㎡로 구성됐다. 또 청원군 오창2산업단지 3-4블록에서는 모아종합건설이 '모아미래도 와이드파크' '모아미래도 와이드시티'를 분양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인 유성구 둔곡동과 신동을 잇는 도로 건설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대전역~세종시 BRT 도로 공사 역시 순항 중"이라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CEO 보유주택 평균 9억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 대표이사(CEO)들의 보유 주택 가격은 평균 9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CEO 10명 중 4명은 강남권에 거주하고 있었다.

18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그룹 CEO가 보유한 주택 가격은 지난 5월 말 공시가격 기준으로 8억5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오너를 제외한 전문경영인 479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는 합산해 계산했다. 보유 주택 주소지 미상자는 제외했다.

재계 1위인 삼성그룹 CEO들이 집값도 가장 높았다. 이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11억4200만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73명 중 63명(86.3%)이 서울 강남권에 위치했고, 강북과 기타 지역은 각각 4명, 6명에 그쳤다. /박선옥기자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롯데건설 650억 수주

롯데건설은 베트남에서 6200만 달러(약 65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베트남 도로공사(Vietnam Expressway Corporation)가 발주한 것으로 베트남 제3의 도시인 다낭시와 꽝응아이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공사다.

총 연장 140km 중 롯데건설이 왕복 4차선 연장 14.6km의 구간을 건설하게 되며, 공사 기간은 36개월이다.

이외에도 롯데건설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65층 규모의 대형 주상복합빌딩인 롯데센터 하노이 건설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베트남 북부 라오까이 지역에 총 연장 66km의 철도 개량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

/박선옥기자

BC카드 MAMA 원정대

BC카드는 '2013 MAMA 40인 원정대' 발대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서초동 소재 BC카드 사옥에서 진행된 '2013 MAMA 40인 원정대' 발대식에는 원정대로 선정된 BC카드 회원 40명을 포함해 BC카드 및 CJ E&M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 원정대는 오는 22일 홍콩에서 진행되는 2013 MAMA 행사 관람을 비롯해 홍콩 현지에서 BC 유니온페이(UnionPay) 카드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2013 MAMA 공식 로고가 삽입된 선불카드가 판매 중이며, 2014년 2월 28일까지 ▲홍콩 공항철도 5% 할인 ▲인천공항 내 33개 F&B 매장 최대 15% 할인 등과 같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박선옥기자

꼼꼼IT리뷰 - 소니 바이오 '프로 13 레드 에디션'

장인 수작업 '섬세한 디자인의 유혹'

1.06kg 최경량급 노트북

소니의 노트북 브랜드 바이오는 한때 잘나갔다. 그런데 삼성, HP, 도시바 등이 울트라신 카테고리로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은 예전만 못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승부수를 던졌다. 하드웨어에 집착했던 고집을 버리고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 첫 번째 결실이 '프로 13레드 에디션'이다.

얼핏 봐도 무척 고급스러워 보인다. 레드 에디션은 가장 아름다운 레드를 표현하기 위해 소니의 기술력과 장인정신이 투입됐다.

핑크, 핑크 실버, 레드 컬러와 UV 코팅을 순차적으로 입히는 총 4단계의 도장 작업을 진행했으며 마무리 작업에는 최고의 기술자가 수작업으로 제품을 마감하는 섬세함을 덧붙였다.

또 상·하판에 탄소섬유를 적용해 내구성과 이동성을 동시에 잡았으며 손목받침대에는 높이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알루미늄 소재의 경사형 구조를 적용해 편안한 작업 환경을 구현했다.

1.06kg의 무게는 맥북에어보다 0.02kg 가벼운 수준이라 '세계 최경량'이라는 타이틀에 근접했다.

물론 풀HD 디스플레이와 4세대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 512GB PCIe SSD, 8GB 메모리 등 최신 사양은 기본이다. 274만9000원이라는 가격이 걸림돌이지만 프리미엄 노트북을 찾는 이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박성훈기자

스마일게이트·JYP 수지와 닉쿤 앞세운 '크로스파이어' 배경 작품 제작

게임 넘어 K-콘텐츠로!

수지와 닉쿤을 앞세운 액션 영화와 드라마가 제작된다. 이 영상은 인기 총싸움 게임 '크로스파이어'의 스토리와 배경을 기반으로 한다.

태국 출신인 2PM의 닉쿤은 태국 현지 게이머에게 맞는 크로스파이어 콘텐츠 개발 작업에 뛰어든다. 닉쿤이 게임 개발에 참여하면 현지 문화나 언어에 대한 사실감이 커진다.

글로벌 1위 FPS 크로스파이어 제작사인 스마일게이트와 원더걸스, 미쓰에이, 2PM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는 18일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이룬 양사가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취지다.

닉쿤, 수지가 등장한 크로스파이어 홍보 영상

크로스파이어는 중국에서 동시접속자 수 420만 명을 기록하며 기네스북 인증을 받았고 최근 브라질에서 FPS 1위에 오르는 등 76개국 4억 명이 즐기는 글로벌 게임으로 자리 잡았다. JYP의 미쓰에이, 2PM 역시 중국, 태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두 회사가 손을 잡은 것은 게임과 연예 콘텐츠를 버무려 새로운 장르의 한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날 양사는 미쓰에이와 2PM이 참여한 크로스파이어 프로모션 영상을 공개하며 합작의 서막을 알렸다.

게임사와 연예기획사가 업무 협약을 맺고 특정 캐릭터 제작이나 홍보 영상을 만드는 일은 잦았지만 이번처럼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거나 아티스트가 기획 단계부터 동참하는 것은 처음이다.

스마일게이트의 손세휘 실장은 "지식, 기술, 재능 등을 각자의 분야에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양사가 만나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성훈기자

후지필름 출사단 모집

한국후지필름이 30일 잠실 롯데월드에서 열리는 '인스탁스 미니90 출사단' 참가자를 모집한다. 26일까지 한국후지필름의 페이스북(www.facebook.com/fujifilmkorea)을 방문해 '좋아요'를 누르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양식에 맞게 사연을 작성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신청자 중 총 7커플(14명)을 선정해 '인스탁스 미니90' 카메라 대여 및 인스탁스 미니필름 1팩과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저녁 식사, 기념품 등을 제공한다. /이국명기자

일본여행

알뜰만족 실속 일본여행!

규슈 온천여행 3일 | 399,000부터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제외)

오사카 ★ 고베야경 3일/4일 | 399,000부터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북해도 3일/4일 | 699,000부터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오키나와 4일 | 499,000부터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예약문의 |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577-1212

강남점 1600-6963

www.hanatourist.com

최근 3년간 첫눈 후 판매증가폭이 큰 제품군

"남자야, 첫눈 내리는 날 여잔~그렇다"

너희 문풍지 살때 우린 커플룩 산다

18일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첫눈이 내린 가운데 첫눈이 내리는 날 오픈마켓에서 성별에 따라 구매 성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옥션이 지난 3년(2010~2012년) 동안 첫눈 온 날의 전주 대비 상품 판매 증가폭을 조사한 결과, 여성은 커플룩·레스토랑 식사권·의류를, 남성은 방풍비닐·문풍지·내의 등의 방한용품을 그 전주에 비해 훨씬 더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의 경우 털부츠·장갑·목도리 등 의류를 준비하는 데 반해, 40대 이상은 방풍비닐·손난로·내의 등을 주로 구매했다. 이 데이터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첫눈 온 날 옥션에서의 판매 순위를 뽑고, 상위 순위 품목 중 첫눈 온 날 이전 일주일 대비 판매 증가분이 큰 순으로 첫눈 수혜 품목을 선정한 결과다.

최근 3년간 첫눈 덕에 전주 대비 판매 증가폭이 가장 컸던 제품군은 커플룩(3년 평균 850%), 2위는 패밀리레스토랑 이용권(550% 증가), 3위는 털장갑(290% 증가)이었다.

연령별로는 커플룩은 지난 3년간 30대 구매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2012년에는 30대가 전체의 70%나 차지했다. 패밀리레스토랑 이용권은 2010년에는 20~30대 젊은층 구매율이 90%였으나 2012년에는 40~50대가 34%를 차지할 정도로 중년층 구매가 상대적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정현철기자

불황엔 포인트가 답이다

회전초밥·죽전문점·편의점 등 멤버십 잇따라 도입

국내 외식 유통업계가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할인·적립 이벤트 등의 혜택을 통해 불황 타파에 나서고 있다. 패밀리레스토랑이나 거대 유통그룹에서 운영해오던 멤버십 제도가 편의점이나 죽 전문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외식 매장에도 속속 도입돼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포인트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제3 화폐'인 셈이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크게 늘면서 앱 하나에 다양한 멤버십 카드를 소지할 수 있어 포인트 사용이 용이해지면서 최근 다시금 각광받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는 초밥 한 접시, 죽 한 그릇을 먹더라도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하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장기 불황으로 인해 소규모 외식 매장들도 멤버십 제도를 도입해 단골고객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스시로는 회전초밥 전문점 중 최초로 멤버십 제도를 도입하고 최근 'S멤버십 카드'를 선보였다. 최종 결제 금액의 3%가 적립되는 포인트카드로 5000포인트 이상부터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고, 2만 포인트 이상 적립 시에는 5만원 상당의 식사권을 제공한다.

'본죽'에서도 본도시락, 본비빔밥 등 자사 모든 외식 브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포인트카드를 출시했다. 결제 금액의 3%가 적립되고 1000포인트 이상 적립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 카페 드롭탑(DROPTOP)도 BC카드와 제휴해 음료 구매 시 멤버십 카드인 '드롭탑 엔 오! 포인트카드'를 제시하면 20% 할인과 동시에 결제 금액의 2%를 적립해주는 더블 혜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편의점 CU는 CJ 멤버십과 소셜커머스 형태를 결합한 '이달의 포인트 상품'과 'CU멤버십 앱' 등을 통해 포인트 마케팅을 주도하고 있다. 매월 한 가지 상품을 선정해 일정 수량에 한해 CU포인트로 구매 시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뷰티포인트 서비스는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생활용품·건강식품의 모든 브랜드와 에뛰드, 이니스프리의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통합 멤버십 서비스다. 뷰티포인트 가입자는 관련 업계 매장에서 결제 금액의 3%를 적립받고, 다 쓴 화장품 병을 매장에 기져가면 개당 500포인트, 월 최대 5000포인트까지 적립받을 수 있다.

/정해림기자 pms@metroseoul.co.kr

온오프라인 기부캠페인 – "CJ에서 하면 기쁨 두배" CJ는 소외 아동 돕는 후원 기부 시스템인 'CJ도너스캠프 러브드림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CJ는 고객들의 편리한 기부를 위해 계열사 오프라인 전 매장에 바코드와 QR코드 모금함을 설치했다. 기부 내역은 영수증에 상세히 표시되며 현금, 신용카드와 CJ원포인트로도 기부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500원부터 기부가 가능하며 횟수 제한이 없고, 온라인은 100원부터 자유롭게 모든 결제 수단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연말 소득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CJ는 고객이 기부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더해 2배의 사랑을 전달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을 적용해 나눔의 의미를 더한다. 오프라인 매장 기부 참여는 다음달 1일부터 가능하다. /CJ 제공

홈플러스 온라인몰 "매일매일 최대 80% 할인"

소셜커머스 '디두' 론칭

홈플러스 온라인몰이 소셜커머스 서비스로 운영하던 디스카운트 디데이(이하 디디)을 매일 특가 서비스로 변경해 DD 투데이(이하 디두)로 새롭게 개편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디디'는 주 2회에 걸쳐 최대 80%를 할인해주는 소셜커머스 서비스로 기존의 소셜커머스와는 달리 단 1명이 구매해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일정 인원이 모여야만 할인을 받는 공동구매 개념이 아닌 한정 수량까지는 선착순으로 판매가 된다.

홈플러스는 이런 디디의 기존 혜택은 유지하면서 주 2회 진행하던 것을 18일부터는 전면 개편해 매일매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하루 특가 이벤트로 하루에 한 상품씩 선정해 운영한다.

디두는 대형마트의 강점이었던 유아동·생필품·가전 중심의 상품 운영에서 벗어나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하는 젊은 세대를 위한 패션 상품, 기존 충성 고객층인 주부를 위한 생활용품 등 상품 구색을 확대했다.

또 기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었던 최저 가격(가격비교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최저 가격에서) 추가 할인 혜택을 일별 한정 수량으로 제공하고, 디두 캘린더를 만들어 앞으로 일주일간 진행될 행사를 미리 예고해주는 기능을 추가했다. 시즌에 맞는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테마숍'도 새롭게 구성해 선보인다. /정해림기자

뉴스 & 뉴스

쿠팡, 3년 만에 연간 누적 거래액 1조 돌파

● 쿠팡은 서비스 개시 3년이 만에 소셜커머스 최초로 연간 누적 거래액 1조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쿠팡은 올 1월부터 11월 2주까지의 실적을 결산한 결과, 1조300억원의 누적 거래액을 기록했다. 거래액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오픈마켓을 제외한 전자상거래 서비스 중에서 쿠팡이 최초이며, 1996년 국내에 인터넷 쇼핑몰이 등장한 지 17년 만이다.

죠스푸드, 보육원 찾아 '맛있는 나눔' 봉사

● 죠스푸드 나상균 대표와 임직원들은 지난 17일 회사 창립 6주년을 기념해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한 보육원을 찾아 원아들과 함께 김밥과 떡볶이, 어묵탕을 만들어 나눠 먹는 '맛있는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또 임직원들은 보육원 실내외를 구석구석 정성 들여 청소하는 등 환경 미화 활동에도 구슬땀을 흘렸으며, 쌀 20kg 10포대도 기증했다.

11월 14일 오후 2시 티켓오픈!!!
조기예매시 20% 할인!!
MUSICAL
사운드 오브 뮤직
2014. 1. 4 (토) ~ 2. 5 (수) 유니버설아트센터
화, 목, 금 오후 8시 / 수 오후 4시, 8시 / 토 오후 3시, 7시 / 일 오후 2시, 6시
관람료 / VIP석 10만원 / R석 8만원 / S석 6만원 / A석 4만원
공연예매 / 인터파크티켓 1544-1555 주최 / HYUNDAI

평일엔 '체크' 주말엔 '맨투맨'

티셔츠 하나로 '오빠' 변신…니트·패딩조끼·아우터 코디하면 따뜻한 멋쟁이

'아저씨 스타일'을 거부하는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비즈니스 캐주얼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겨울 '오빠'라 불리고 싶어하는 남성들을 위해 세련된 일상 패션을 제안한다.

◆'따도남'은 체크 셔츠에 니트

남성 직장인들의 기본 코디는 셔츠와 니트, 아우터라 할 수 있다. 특히 셔츠는 소재와 색상에 따라 전체적인 인상이 달라질 수 있어 꼼꼼하게 골라야 한다. 이번 시즌 유행 패턴인 체크 셔츠는 활동적인 느낌을 주는 동시에 정장과 캐주얼에 두루 어울려 실용적이다.

체크 셔츠의 단짝인 니트 역시 버건디·블랙·회색 등을 골라야 어떤 색상의 의류와도 잘 어울려 오 인기에 서툰 남성들도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다. 패션 전문점 웰에이드 관계자는 "셔츠는 남성들의 감각을 지켜주는 매우 훌륭한 아이템이지만 보온성이 떨어져 단벌로 입기보다 울 니트·캐시미어 스웨터 등과 함께 코디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올겨울 아우터는 1990년대의 과장된 실루엣을 연상시키는 오버 사이즈가 인기다. 어깨선이 없고 품이 넉넉한 오버 사이즈 코트를 입을 때 통이 넓은 바지보다는 슬림핏의 팬츠를 매치해야 멋스럽다.

◆휴일에는 스트리트 패션으로

휴일에는 자연스러움이 멋인 스트리트 패션에 도전해도 좋다.

최근 겐조·지방시 등 하이패션 브랜드들은 '맨투맨 티'라 불리던 스웨트 셔츠에 현란한 그래피티와 로고 등을 새겨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재탄생시켰다. 스웨트 셔츠에는 야구 점퍼나 패딩 조끼 등을 걸치면 활동적인 룩이 완성된다.

신발은 클래식한 정장 구두나 투박한 운동화보다는 날렵한 스니커즈가 적당하다. 캐터필라의 라인 코드는 1960년대 패션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남성용 스니커즈로 부드러운 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해 빈티지한 멋이 살아있다.

/박지원기자 szw@metroseoul.co.kr

드라마속 마모트 SNS이벤트

블랙야크가 전개하는 '아메리칸 마운틴 수트' 마모트가 '드라마 속 마모트를 찾아라'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24일까지 마모트 공식 블로그(blog.naver.com/marmot_korea)에서 SBS 드라마 '상속자들'에서 박형식이 입은 마모트 제품을 맞히면 된다. 27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박형식이 입은 제품 등을 선물할 예정이다. /박지원기자

전문가 다운재킷 콜드에이스

아웃도어 브랜드 마운틴하드웨어가 전문가용 다운재킷 '콜드에이스'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유럽에서 생산된 800필파워의 거위털 충전재를 사용, 보온성을 극대화하고 '드라이큐 코어' 소재와 전체 심실링 구조를 적용해 방수 기능을 강화했다.

모두 3가지 색상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격은 80만원이다. /박지원기자

스탠포드호텔 전복라면 첫선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스탠포드호텔은 연말까지 제철 보양 음식인 '전복'을 이용해 몸을 보할 수 있는 '전복해물라면'을 선보인다.

메뉴는 2가지 단품 구성으로 주중 조식에는 '전복해장라면'(6000원)을 맛볼 수 있으며 주중 점심에는 바쁜 직장인들이 간단하게 보양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전복해물라면'(1만원)이 제공된다. 전복은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피부 미용과 원기 회복에 효과적이다. 문의 02)6016-0080 /황재용기자

때이른 추위에 '뽁뽁이' 인기 폭발

단열시트·에어캡·문풍지 불황형 난방용품 잘 팔려

오랜 경기 침체에 때이른 추위가 겹치면서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불황형 난방용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마트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난방용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불황형 난방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황형 난방용품인 단열시트는 지난해 동기 대비 645.75%나 늘어났다. 주로 포장재로 쓰이다가 최근에는 단열재로 주목받고 있는 에어캡과 문풍지의 매출은 각각 83%, 42% 신장했다.

이마트 제공

단열시트는 1~7일에 비해 87.98% 증가했고 문풍지(78.2%)와 에어캡(25.64%)도 전주 대비 많이 팔렸다. 올해는 온수매트 매출이 전기매트보다 급증했다. 온수매트 매출은 지난해 대비 1631%나 증가했지만 전기매트는 오히려 7% 감소했다.

반면에 일반 난방용품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3.5%, 1~7일에 비해서는 18.9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은필기자 pms@

러쉬, 웨스트우드와 협업 '기프트 랩' 한정판 선보여

영국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가 패션 디자이너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함께 '클라이밋 레볼루션 기프트 랩'을 한정판으로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기후변화 혁명 캠페인의 일환으로 100% 유기농 면으로 제품을 보자기처럼 선물 포장하거나 머리와 목에 둘러 액세서리로 활용할 수 있다. 카키·라이트 핑크 등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다.

러쉬 기프트 랩은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를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판매 수익금 전액은 기후변화 혁명 캠페인 후원에 쓰일 예정이다.

러쉬 관계자는 "비비안 웨스트우드와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매년 늘어나는 크리스마스 포장 쓰레기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후후 불며 먹는 한우사골곰탕 딱이네

강강술래 매출 40% 늘어 천일염 선물·할인 판매도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에 면역력을 높이고 기력 보충에 좋은 보양식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강강술래는 한우사골곰탕 매출이 전년보다 40% 이상 껑충 뛰었다고 18일 밝혔다.

강강술래 공장은 HACCP 인증 시설에서 100% 한우로만 우려내 맛이 진하며 방부제·색소·조미료 등을 일절 넣지 않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레토르트 포장을 통해 실온에서도 9개월까지 보관 가능하며 봉지째 데워 먹을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ss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이달 말까지 '한우사골곰탕' 선물세트(500㎖·5팩·15인분)는 3만7300원, 박스세트(500㎖·10팩·30인분)는 7만5600원에 30% 할인 판매하며 구매 시 신송식품의 신안바다천일염(1.5㎏·5000원)을 사은품으로 준다.

곰탕 소용량세트(350㎖·5팩·10인분)는 2만2000원, 100% 한우갈빗살을 사용한 칠절판우떡갈비(3세트·1.08㎏) 4만2000원, 흑임자한돈너비아니(3세트·1.08㎏) 2만5200원 등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이달 30일까지 홈페이지 고객마당에 신청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국내 최초 라이브 국악 뮤지컬 '판타스틱' 티켓(1인 2매)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벌인다.

강렬한 타악기의 국악 선율에서부터 랩에서 록까지 넘나드는 국악의 색다른 변신과 함께 한국의 몸짓과 소리를 역동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삼계점은 22일까지 매장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갯벌 천일염(3㎏)을 공짜로 주며, 시흥점은 이달 30일까지 2회 이상 방문 멤버십 고객에게 천일염(3㎏) 무료 쿠폰을 문자로 보내준다. 서초와 역삼점도 주말 가족 단위 방문 고객과 멤버십 신규 가입 회원에게 소진 시까지 천일염(3㎏)을 무료로 증정한다. /서지원기자

행지, 경력단절 여성 채용

패션그룹 형지는 경력이 단절된 주부를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 '쉬 김맘 리턴즈'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마케팅·디자인·서비스 분야의 전공자 또는 경력자로 경력단절 기간이 2년 이상인 여성 10여 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기업의 전반적 경영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컨슈머 디렉터로 일하게 되며, 채용 모집은 이달 말부터 진행된다.

엄홍길휴먼재단 '무료 인공관절' 후원

6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차상위 계층 환자 인공관절로 새 삶 선사

중장년층 무릎 통증의 대표적 원인은 퇴행성관절염이다.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과 함께 무릎이 붓고 심하면 O자형으로 휘기도 한다. 이러한 퇴행성관절염은 나이를 먹으며 점차 무릎의 연골이 닳는 질환인데 퇴행성관절염을 방치해 연골이 모두 닳게 되는 말기에 이르면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환자들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생활비조차도 넉넉하지 못해 수술비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설립한 '엄홍길휴먼재단'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인공관절 수술 캠페인'을 통해 본격적인 후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저소득층 환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인공관절 수술 비용

퇴행성관절염은 60세 이상 노인의 약 80%가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진행 정도가 말기로 접어들면 걷기도 어려울 정도의 심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약물이나 주사요법도 효과가 없어 인공관절 수술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관절 수술은 다 닳아버린 무릎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해주는 수술로 수술 이후에는 통증이 경감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

인공관절 수술을 한쪽 무릎만 받을 경우 환자 부담금은 약 250만~300만원이며 양측 무릎을 모두 시행할 경우에는 약 500만원 정도가 든다. 수술 후에도 2~3주가량의 입원 기간이 필요해 입원비와 간병비 등이 추가로 부담되고 수술 전후의 검사 및 진료 비용 등도 필요하다. 즉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약 600만~700만원가량의 비용이 들고 만약 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그 비용은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엄홍길휴먼재단, 저소득층 위한 무료 인공관절 수술 캠페인 전개

이런 연유로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퇴행성관절염 말기 진단을 받은 상태라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비싼 수술비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엄홍길휴먼재단이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인공관절 수술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방치해두고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후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엄홍길휴먼재단 캠페인 담당자에게 신청자의 어려운 사연과 증상을 전화와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엄홍길휴먼재단의 엄홍길 상임이사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만 마땅히 치료를 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건강한 무릎을 되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재용기자

◆치료 후원 신청 방법

이번 행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 전화 : 02)2272-8849(엄홍길휴먼재단 후원 캠페인 담당자)
- 인터넷 : 엄홍길휴먼재단 홈페이지(www.uhf.or.kr) 접속 후 후원 캠페인 게시판을 통해 신청

이대목동병원 "대사증후군·비만 조기 예측"

출생 시 제대혈을 이용한 유전자 분석을 통해 대사증후군이나 비만, 당뇨병 등의 발병 위험성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게 됐다.

이대목동병원 김영주(사진) 교수팀은 'POMC(Proopiomelanocortin) 유전자 메틸화를 이용한 대사증후군 조기 예측'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팀은 2003~2005년 사이 이대목동병원에서 출생한 90명의 아이들의 제대혈을 후성유전학적 접근법으로 분석했으며 이후 약 10년간 아이들의 성장 및 신체 발달 사항을 추적했다.

/황재용기자

동탄성심병원 등 건강강좌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은 20일 '비뇨, 전립선암의 방사선 치료'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비뇨 비뇨기 질환의 시작',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등의 강의가 진행되고 추첨을 통해 기념품도 제공된다.

또 서울대병원은 25일 '소아의 간이식'에 대한 건강강좌를 마련했다. 강의에서는 소아 장기기능 부전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간이식에 대해 강의가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황재용기자 hsoul38@

star bag

21일 신곡 – 내년 월드투어

걸그룹 **2NE1**이 신곡 발표와 내년 월드투어 소식을 함께 전했다.

2NE1은 18일 공식 블로그에 21일 신곡 '그리워 해요'를 공개하고, 내년 3월 서울을 시작으로 중국·홍콩·대만·싱가포르·태국·말레이시아·일본 등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곡에 대해 "21일 0시에 공개한다. 늦은 밤에 어울리는 곡이라 밤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로맨스가 필요해 3' 주연공

배우 **김소연**이 내년 1월 방송될 tvN 새 월화극 '로맨스가 필요해 3'의 여주인공 신주연 역으로 확정됐다.

신주연은 홈쇼핑 패션 MD로 천성은 순수하고 따뜻하지만 9년의 직장 생활 등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아 까칠하고 예민한 성격으로 변해가는 인물이다. 그를 이끌어주는 멘토 같은 남자와 지친 인생을 달래주는 연하남 사이에서 현실적인 연애담을 그려간다.

첫 정규앨범 '굿바이 20' 발표

가수 **김예림**이 18일 첫 번째 정규앨범 '굿바이 20'을 발표한다.

앨범에는 2개의 신곡과 앞서 발표한 '어 보이스'와 '허 보이스'의 수록곡들이 담겼다. 타이틀곡 '굿바이 20'은 김예림이 지금까지 부른 곡 중 가장 경쾌한 분위기의 노래다. '스무 살이 되면 내 세상이 올 것 같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귀여운 푸념을 담은 노래로 김예림이 작사했다.

12일 전역 – '미스코리아' 컴백

배우 **최재환**이 전역과 함께 '미스코리아'에 합류했다.

12일 육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최재환은 MBC 새 수목 미니시리즈 '미스코리아'에 캐스팅됐다. 복귀와 동시에 연기 활동을 시작하게 된 셈이다. 최재환과 드라마 '파스타'로 인연을 맺었던 서숙향 작가, 권석장 PD는 이번 작품을 시작하면서부터 최재환을 염두에 둔 배역을 마련할 만큼 끈끈한 애정을 과시했다.

"마성남 독고마테 딱 내모습" "까불이 김보통은 나와 딴판"

수목극 '예쁜 남자'로 첫 연기 호흡 — 장근석·아이유

'아시아 프린스'와 '국민 여동생'이 만났다. 1년여 만에 드라마로 복귀한 배우 장근석과 '최고다 이순신' 이후 3개월 만에 드라마로 돌아온 아이유가 20일 첫 방송되는 KBS2 수목드라마 '예쁜 남자'에서 함께한다. 두 사람은 남다른 호흡을 자랑하고 서로에 대한 묘한 애정을 드러내며 막강 '케미'를 예고했다.

/장성준기자 ysa@metroseoul.co.kr

'예쁜 남자' 원작만화 비평으로 제작

천계영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예쁜 남자'에 대한 제작 전부터의 관심과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남자 주인공 독고마테 역으로 열연하게 된 배우 장근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만화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주인공 독고마테를 배우 장근석이 얼마나 현실감 있게 재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번 드라마의 성패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장근석은 "캐스팅 제안을 받고 원작 만화를 보고 무척 장근석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근짱, 중국에서는 황근슈어로 불린다. 이번 작품을 통해 한국에서도 당당하게 배우 장근석으로 불리고 싶어서 선택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아이유 "몸 연기 준비됐다"

소녀시대 윤아와 문근영·박신혜 등 아시아 팝 스타들이 장근석과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춘 데 이어 이번에는 가수 아이유가 그의 파트너로 나선다. 아이유는 중학교 시절부터 독고마테를 짝사랑해온 평범한 소녀 김보통 역을 맡았다. 갈 곳 잃은 김보통은 마테에게 가져다주기 위해 몰래 갈비를 훔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인물로 등장한다.

15일 오후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KBS 2TV '예쁜 남자' 제작발표회 현장에 장근석의 공식팬클럽 크리제이, 장근석닷넷 등 여러 팬들이 1만3500kg의 쌀 화환을 보내왔다.

아이유는 "평소 몸을 많이 움직이거나 활동적인 성격이 아닌데 보통이는 전혀 다르다"며 "길을 걸어다녀도 그냥 걷지 않고 스텝을 밟거나 가방도 굉장히 큰 것을 메고 다니기 때문에 다양한 몸 연기를 선보일 것이다"고 기대를 당부했다.

아이유와 처음 호흡을 맞춘 장근석은 "오랜 기간 배우로 활동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기를 했다"며 "대사나 연기 호흡을 따로 맞춰보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배우"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장근석 연기 여전

'예쁜 남자' 제작발표회장은 장근석의 팬클럽 현장을 방불케 했다.

행사가 열린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7층에는 장근석의 다국적 팬들이 보낸 쌀 화환과 포스터로 가득했다. '아시아 프린스'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장근석은 "1만3500kg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받아 본 쌀 화환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다"며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장근석의 복귀작에 대한 관심도 집중됐다. '예쁜 남자' 제작 관계자는 "'예쁜 남자' 제작발표회 현장에 국내 80여 개 언론 매체가 사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 20여 개의 해외 매체가 참석했다. 국내·외 안팎만 250여 명 정도로 추산되며 해외 매체 취재진까지 합산할 경우 약 300여 명이 현장에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KBS 새 수목드라마 '예쁜 남자'의 장근석(왼쪽)과 아이유가 18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서로 연기 호흡을 맞추는 데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손진영기자 son@

the(더) 순정예능

평균 한국거주 7년, 외국인 4인방의 순정예능

매주 |화| 밤 11시 tvN 방송 / 11월 19일 첫방송

방청객 못 웃기면 바로 통편집
간판코너 있지만 고정은 없어

무한 경쟁 '개콘' 쿨한 재미

서바이벌 도입 예능 1위 지켜

14년째 일요일 밤 안방극장을 책임지고 있는 KBS2 '개그콘서트'(이하 '개콘')가 달라지고 있다.

'개콘'이 녹화 현장의 방청객 반응과 내부 회의를 통해 방송 여부를 결정짓는 서바이벌 시스템을 도입해 일요일 예능 프로그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과거 '개콘'은 고정 코너 위주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방송된 '달인'과 2006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각종 유행어를 만들어낸 '골목대장 마빡이'는 매주 빠짐 없이 방송됐다. 재미없는 소재로 녹화되더라도 시청자들의 관심을 반영해 그대로 방송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수 코너라고 방송을 담보할 수 없다. 신선한 소재를 바탕으로 구성된 코너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신인 개그맨에게는 다양한 기회를 주면서 기존 출연진에게는 늘 신선한 아이템을 발굴하도록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이로 인해 중고 신인들의 도전이 돋보인다. 5년 무명 생활을 보낸 안소미는 '놈놈놈'에서 김기리·유민석 송필근에게 둘러싸여 사랑을 받는 인물로 등장한다. 2007년 공채로 발탁된 장효인은 '두근두근'(사진 왼쪽)에서 사랑스러운 연기로 인기를 얻고 있다. 2012년 공채 동기 이수지·정찬민도 보이스피싱의 문제를 소재로 만든 '황해'(오른쪽)로 주목받았다. 올해 공채 개그맨에 선발된 김나희는 지난달 선보인 '좀비 프로젝트'에 출연하며 얼굴도장을 찍었다.

'개콘'의 한 관계자는 "간판 코너는 있지만 고정 코너라는 개념은 사라졌다. 인기 코너라도 예외는 없다. 방청객 반응이 없다면 통편집된다"며 "신인뿐 아니라 기존 개그맨들도 매주 다양한 아이템을 공개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유순호기자 ysw@metroseoul.co.kr

이승기 '곤충' 나레이션

배우 이승기(사진)가 MBC 창사 52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곤충, 위대한 본능'의 내레이션을 맡았다.

29일 방송되는 '곤충, 위대한 본능'은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곤충의 생태계와 희로애락이 담긴 다큐멘터리다. '아마존의 눈물'과 '남극의 눈물' 등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온 제작진이 의기투합한 프로그램이다.

MBC 창사특집 다큐멘터리는 지금까지 김남길·송중기·현빈 등 최고 남자 스타들이 내레이터로 참여했다. 이승기는 감미로운 목소리와 정확한 전달력으로 호평을 받았다. /한용호기자

헬멧 벗은 크레용팝

'빠빠빠' 열풍을 일으킨 걸그룹 크레용팝이 마침내 헬멧을 벗었다. 이들은 18일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신곡 '크리스마스 미러클' 콘셉트 사진을 공개했다. '빠빠빠'를 발표하고 직렬 5기통 춤으로 큰 인기를 얻은 이들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의상으로 신곡 활동에 나선다. 신곡은 20일 발표한다.

▶ 5개월 헬멧 생활 청산하고 스타 인증

/유순호기자

연예기획사 속살 까발린다

'청담동 111' 21일 첫방송

아이돌 가수들이 소속된 실제 기획사를 배경으로 한 리얼리티 드라마가 최초로 전파를 탄다.

21일 첫 방송되는 tvN '청담동 111'은 FT아일랜드·씨엔블루·AOA·주니엘, 배우 이동건·박광현, 개그우먼 송은희 등이 소속된 FNC엔터테인먼트(이하 FNC)의 사옥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청담동 111'은 FNC의 실제 주소지다.

15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이덕재 tvN 본부장은 "SM·YG·JYP엔터테인먼트는 많이 알려져 있고 건물 내부도 공개된 바 있다. 그러나 FNC는 가수의 브랜드에 비해 소속사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라고 FNC를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15일 열린 tvN '청담동 111' 제작발표회에서 FNC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소속 연예인인 FT아일랜드, 씨엔블루, AOA, 주니엘, 송은이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연예기획사 내부의 일상과 아티스트와 스태프의 생활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기획했다"며 "아티스트의 모습뿐 아니라 스태프의 고민과 기지도 을 다루려 했다"고 덧붙였다.

FNC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회사에 몸담고 있는 FT아일랜드의 이홍기는 "가뜩이나 앨범 만드느라 바쁜데 이거 하느라 시간 뺏겨야 하나 싶었다. 기획안을 보니 100% 망할 거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하다 보니 쌓여있던 오해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얻는 점도 있었다"고 촬영 소감을 밝혔다.

이홍기는 최근 전파를 탄 예고편에 여자친구가 있다고 고백했지만 "2주 만나고 헤어졌다"고 결별 사실을 털어놓았다. '청담동 111'은 8부작으로 제작된다. /유순호기자 sun@

'패션왕' 봄 대신 브라이언

가수 브라이언(사진)이 불법 도박 혐의로 SBS '패션왕 코리아'에서 하차한 방송인 붐의 자리를 대신한다.

제작진에 따르면 붐이 자진 하차 의사를 밝혀와 후속 대책을 고민했고, 지금까지 녹화분에서 붐의 분량을 최대한 편집할 계획이다. 브라이언은 붐의 파트너인 박윤정 디자이너와 호흡을 맞춰 5회부터 참여한다.

24일 밤 12시10분 첫 방송되는 '패션왕 코리아'는 소녀시대의 티파니, 씨스타의 보라, 가수 윤건, 배우 이지훈 등의 스타들과 디자이너가 함께 팀을 이뤄 경쟁하는 서바이벌 패션 프로그램이다.

유명 사진가가 찜한 엘

니나가와 미카 모델로 발탁

인피니트의 엘(사진)이 세계적인 사진작가 겸 영화감독인 니나가와 미카의 모델로 발탁돼 28일 일본에서 발간되는 잡지 AJ의 표지 화보를 촬영했다.

니나가와 미카는 사진작가이자 영화 '사쿠란', '헬터 스켈터' 등을 만든 영화감독으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인정받아 왔다.

그는 '니나가와 컬러'라는 말을 유행시켰을 정도로 원색의 강렬하고 독특한 스타일의 작품을 내놓으며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엘은 두 차례 자신의 이름을 내건 포토에세이를 발간한 바 있다. /유순호기자

"진한 키스신에 떨렸다"

'캐치미' 주원 김아중과 호흡

18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캐치미' 제작보고회에서 배우 김아중(왼쪽)과 주원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화 '캐치미'에서 호흡을 맞춘 배우 김아중과 주원이 실제 연인과 같은 감정을 주고받았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18일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주원은 김아중에 대해 "파트너를 좋아하지 않으면 같이 연기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호감을 드러냈다.

그는 또 "키스신 촬영 전 감독님이 참고 영상을 보여줬는데 정말 끈적끈적한 키스신이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진한 키스신을 찍어본 적이 없어서 표현을 쉽게 애를 썼다"고 말했다.

김아중도 "키스신과 베드신을 촬영할 때 주원을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통통 튀는 캐릭터인데 키스신 촬영 때는 전작 '나의 PS 파트너'의 영향 덧에 분위기가 자꾸 끈적해져서 감독님께 귀엽게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남모를 고충을 털어놨다.

'캐치미'는 전문 프로파일러 이호태(주원)와 10년 전 첫사랑인 전설의 대도 윤진숙(김아중)의 쫓고 쫓기는 이야기를 다룬 로맨틱 코미디로 다음달 12일 개봉된다.

/유순호기자 sune@metroseoul.co.kr

또 신드롬 예고… '친구' 아이가~

2편 '친구2' 최단기간 100만 – 주말 박스오피스 1위

곽경택 감독의 '친구2'(사진)가 전편에 버금가는 흥행세를 보였다.

1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친구2'는 15~17일 106만7440명을 불러모아 누적 관객 137만9753명을 기록했다. '친구2'는 2주간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던 '토르: 다크월드'를 끌어내리고 정상에 올랐다.

영화사에 따르면 '친구2'는 역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중 최단기간인 사흘 만에 100만 관객을 동파했다. 앞선 기록은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와 '신세계'(이하 4일), '타짜'(5일), '아저씨'(6일) 순이다.

한편 김선아 주연의 '더 파이브'는 사흘간 26만1725명을 동원해 3위, 샌드라 블럭 주연의 '그래비티'는 12만8311명을 모아 4위를 기록했다.

/유순호기자

송강호 주연 '설국열차' '관상' 3관왕

봉준호 감독의 다국적 프로젝트 '설국열차'가 제33회 영평상에서 3관왕에 올랐다.

한국영화평론가협회는 29일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는 어워드 시상식에서 '설국열차'가 작품상·감독상·촬영상을 수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설국열차'에 출연한 송강호(사진)는 또 다른 주연작인 한재림 감독의 '관상'으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다. '관상'에서 송강호와 호흡을 맞춘 조정석은 남우조연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관상'은 음악상도 수상하며 3관왕에 올랐다.

여우주연상은 '소원'의 엄지원, 여우조연상은 '7번방의 선물'의 박신혜에게 돌아간다. '숨바꼭질'의 허정 감독은 신인감독상을 수상한다. 신인남우상과 신인여우상은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의 여진구와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의 정은채가 각각 수상한다.

각본상은 '러시안 소설'의 신연식 감독, CJ CGV 스타상은 '신세계'와 '관상'에 출연한 이정재에게 돌아간다. 원로배우 신성일은 공로영화인상을 받는다.

한국영화평론가협회는 '설국열차' '베를린' '관상' '신세계' '더 테러 라이브' '지슬' '감시자들' '7번방의 선물'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 '우리 선희' '숨바꼭질' 등 11편을 올해의 영화로 선정했다. /유순호기자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춤으로 풀어낸 현대인의 공허함

국립현대무용단 세계적 안무가 헤르만 초청 '증발' 공연

국립현대무용단이 세계적인 안무가 이디트 헤르만을 초청해 현대무용 '증발'을 무대에 올린다.

22~24일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열리는 '증발'은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며 살아가다 현재를 잃어가는 현대인의 공허함에 대한 이야기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억압된 욕망을 허공 속으로 탈주시키며 해방의 카타르시스를 풀어놓는다.

정식 면에서 구현된 타란티노의 영화 '킬 빌'과 '씬 시티' 등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말하는 헤르만은 유치하고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역설적인 유머를 발산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선개한다. 그는 일상의 소품들을 사용해 관객이 시각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던진다.

헤르만은 이스라엘 클리파 시어터의 예술감독이자 이스라엘 현대무용의 메카인 수잔델랄센터의 '쉐이드 오브 댄스' 예술감독을 맡아 세계적으로 작품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아 왔다. 5월 국내에서 공개 오디션으로 선발된 8명의 무용수 등 9명의 출연진이 클리파 시어터에서 즐겨온 워크숍 방식에 맞춰 연습했다. 문의 02)3472-1420 /유순호기자

박세리 넘어선 인비

페테르센 제치고 한국인 최초 LPGA 올해의 선수…"내년엔 커리어 그랜드슬램"

박인비(25·KB금융그룹·사진)가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올해의 선수에 등극했다.

박인비는 18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골프장에서 열린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 마지막 라운드에서 버디 4개에 보기 1개를 곁들이며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로 4위에 올랐다.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 박인비를 추격하던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은 1타 뒤진 10언더파 278타로 공동 5위를 기록하면서 시즌 마지막 대회인 CME그룹 타이틀홀더스의 성적과 상관없이 타이틀을 확정지었다.

지금까지 한국 선수들은 신인상과 평균최저타수상(베어트로피)은 여러 차례 받았지만 최고의 영예인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것은 박인비가 처음이다. LPGA 명예의 전당에 오른 박세리도 이루지 못한 위업이다. 신지애는 2009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에게 1점 차로 뒤져 아쉽게 타이틀을 놓쳤다.

박인비는 수상이 확정된 후 "LPGA 투어에 훌륭한 한국 선수들이 많았고 그만큼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올해의 선수가 없다는 점은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했다"며 "한국인 최초였기에 올해의 선수상에 더욱 욕심이 났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한국 골프사에 의미 있는 한을 한 것 같아 영광이다. 후배들도 그 이상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동기부여가 생길 것"이라며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

상금과 평균 타수 부문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박인비는 CME그룹 타이틀홀더스에서 3관왕을 노린다.

박인비는 "지난해 상금왕을 해 봤기에 큰 욕심은 없다. 올해의 선수상 이후 따라오는 타이틀은 보너스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목표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기대해주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이라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sune@metroseoul.co.kr

김자인 세계랭킹 1위 지켜

'암벽 여제' 김자인(25·노스페이스)이 2013 리드 월드컵 랭킹과 세계 랭킹 1위를 지키며 시즌을 마쳤다.

김자인은 18일 슬로베니아 크란에서 열린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8차 월드컵 여자부 리드에서 4위에 올랐다.

김자인은 이번 대회를 합산한 2013 리드 월드컵 랭킹에서 625점을 기록, 1위를 고수했다. 김자인은 최근 12개월의 대회 포인트를 합산한 세계 랭킹에서도 472.35점을 기록, 454.70점의 마르코비치를 제치고 1위를 석권했다.

김자인은 2년 연속으로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했고 2010년에 이어 개인 통산 두 번째로 세계 랭킹과 월드컵 랭킹 1위로 시즌을 마쳤다. /정성훈기자

최준석 '35억' 고향 롯데로!

올 FA 15명 계약 완료

올 시즌 마지막 자유계약선수(FA) 최준석(30·사진)이 7년 만에 친정 롯데 자이언츠로 돌아왔다.

최준석은 18일 롯데와 4년간 계약금 15억원, 연봉 4억원, 옵션 4억원 등 총 35억원에 계약했다. 2001년 롯데에 입단해 프로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06년 5월 두산 베어스로 트레이드됐다.

최준석은 "고향팀으로 복귀해 열광적인 롯데 팬들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프로로 첫발을 내디딘 부산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뛰겠다"고 복귀 소감을 밝혔다.

통산 965경기에 출장해 타율 0.269, 110홈런 506타점을 올린 최준석은 올해 포스트시즌에서 타율 0.341, 홈런 6개, 9타점을 기록하며 두산의 한국시리즈 진출에 큰 몫을 담당했다.

/유순호기자

홍명보호 '3연승 피날레' 도전

오늘밤 러시아와 평가전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8강 진출을 노리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유럽의 또 다른 강호 러시아를 상대로 올해 마지막 평가전을 치른다.

15일 스위스전을 승리로 장식한 대표팀은 19일 오후 11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자빌 스타디움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9위 러시아와 맞붙는다.

홍명보 감독 부임 이후 4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움츠러들었던 대표팀은 9월 아이티를 상대로 마수걸이 승리를 신고한 뒤 최근 말리와 스위스를 상대로 첫 연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태극전사들은 내친김에 3연승을 거두고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러시아의 수비벽을 뚫어낼 선봉 역할은 홍명보 축구의 원톱 자원을 드리는 김신욱(울산 현대)이 좌·우 날개는 손흥민(바이엘 레버쿠젠), 이청용(볼턴 원더러스)이 변함없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비진도 어느 때처럼 왼쪽부터 김진수(알비렉스 니가타), 김영권(광저우 에버그란데), 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이용(울산)이 포백 라인을 구축할 전망이다. /정성훈기자 ysw@

대표팀 선수들이 17일 오후(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위치한 알립 두바이 스포츠 콤플렉스 내 실내 풋살경기장에서 회복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